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기도회 순서지

일시: 2024년 1월 18일(목) 오후 7시

장소: 예담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신앙과직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서울시 중랑구 대방로 18-1 기독교회관 1115호 | www.facebook.com/kcfkorea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대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창립한 협의체로, 2002년부터 본격화된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활성화와 일치 증진의 성과에 힘입어, 2014년 5월 22일 창립하였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30년, 개신교 130년, 정교회 120년. 이 역사 안에서 한국 그리스도교는 일치와 협력의 경험보다는 선교 전략상의 의도적인 차별화 정책으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지내왔고, 개신교 내부에서의 많은 교파 분열은 이러한 인식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1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선교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가깝게 사귀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 함께 기도하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교파 간의 신앙적 친교를 이루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4
2024년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6
기도예식.....	8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24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25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 하는.....	26
9기 일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소개

연중 일치 추구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이다.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Poul Wattson)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울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월이 휴가철인 남반구의 교회들은 흔히 다른 날들을, 예컨대 그리스도인 일치를 상징하는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 무렵(1926년에 ‘신앙직제운동’이 제안한 기간)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지내기도 한다.

이 기간은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중 어느 때이든, 여러 교회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국제준비위원회가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검토하고 완성하고자 2022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 만났다. 모임은 그리스도인 일치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는 슈망네프 공동체가 2016년부터 경영해 온 카사 산 주세페 디 클루니(Casa San Giuseppe di Cluny)에서 개최되었다.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는 자료집 초안 작성을 자국 슈망네프 공동체의 조력을 받는 부르키나파소 교회 일치 단체에 위임하였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교회 일치에의 열린 마음과 협력이 늘 탄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톨릭교회의 와과두구 대교구와 개신교 교회들, 일치 운동 단체들은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여 기도와 성찰 자료집을 작성하는 데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부르키나파소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불안정하여 평화와 사회 통합에 많은 위협이 존재한다. 이 나라의 역사상 이처럼 위태로운 시기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준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치시키며 그들의 분열보다 큰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교회 일치 초안작성위원회가 인식하도록 도와주었다. 작업이 끝나고서 그들은 이러한 공동 작업에서

참으로 교회 일치적 회심을 체험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안타깝게도, 로마에서 개최된 모임에 참석 예정이었던 지역위원회의 위원 네 명이 마지막 시점에 항공 교통 관제사 파업으로 직접 참석할 수 없었지만, 원격으로 참석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 제네바 본부의 미키 로버츠 목사와 로마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의 안토니 커러 신부가 모임에서 공동 의장을 맡았다.

국제준비위원회 위원

- Revd. Father Martin Browne, OSB
(Dicastery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Rome)
- Revd. Peter Colwell (Churches Together in Britain & Ireland, London)
- Revd. Anthony Curren (Dicastery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Rome)
- Revd. Fr. Miguel Desjardins, CCN (Bishops' Conference of France, Paris)
- Dr. Ani Ghazaryan Drissi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 Sr. Leticia Candelario Lopes, F.M.V.D.
(Verbum Dei Missionary Fraternity, Singapore)
- Revd. Fr. James Puglisi S.A. (Centro pro Unione, Rome)
- Revd. Dr. Mikie Roberts (World Council of Churches, Geneva)
- Pastor Dr. Jochen Wagner
(Association of Christian Churches of Germany, Frankfurt)
- Dr. Clare Watkins (University of Roehampton, London)

부르키나파소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

- Revd. Ousman Justin Bande (St. John the Baptist Seminary, Ouagadougou)
- Ezechiel Amadou Hebie (*Chemin Neuf* Community)
- Revd. David Ilboudo (Archdiocese of Ouagadougou)
- Pastor Tegwende Léonard Kinda (Association of Reformed Evangelical Churches)
- Pastor Patrice Kobamba (Bible Society of Burkina Faso)
- Yvonne Nikiema (Archdiocese of Ouagadougou)
- Henri Rouamba (*Chemin Neuf* Community)
- Sr. Yolande Tapsoba (*Chemin Neuf* Community)
- Florence Zaongo (*Chemin Neuf* Community)
- Alix Zongo (*Chemin Neuf* Community)
- Revd. Dr. Amy Gohdes-Luhman-Pastor, Waconia Moravian Church, Waconia Minnesota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누가복음서 10장 27절)

† 평화를 빕니다.

매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아 다양한 전통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라는 지향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은 부르키나파소 교회 일치 단체에서 지역 슈망네프 공동체에서 준비하였습니다. 2016년 유력 지하드파의 공격이 국외에서 시작되어 전해진 이래로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공공연하게 무장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이상 드러내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무슬림, 토속종교 신자들 사이에 연대의 기운이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르키나파소-니제르 주교회의의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 대화 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종교 간 그리고 인종 간 대화와 협력을 지원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분열보다 큰 힘을 지녔기에, 부르키나파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의 체험에서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을 찾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올해 일치기도주간의 주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드러나는 전통적인 유대교 가르침을 재확인합니다. 전통적으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사랑의 의미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는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점차 특정 지파에만 사랑의 계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게 되었기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그 자체로 도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교사가 예상한 한계를 훨씬 넘어서 확장되는 사랑을 보여 주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써 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국제 관계의 불균형, 서구 열강이나 다른 외부 세력이 강제하는 구조에 순응해야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 모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을 억누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름에 개의치 않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요한 17:21). 그렇

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거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교회들 사이의 상호 이해 부족과 서로를 향한 의구심이 교회 일치의 길에 대한 참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일치 운동이 교파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을지 모른다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 사이의 이러한 경쟁의식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를 도우러 오시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확신과 희망으로 교회 일치의 길을 걷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특수한 상황은 사랑을 중심으로 삼아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평화와 화해의 추구는 종종 가치관 상실과 인류애의 공동 인식 상실, 공동선과 정직, 청렴, 애국심에 대한 관심 저하로 방해받아 왔습니다. 또한 영적인 메마름과 손쉬운 이득의 추구가 화해에 대한 추구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주님 사랑을 증언하여야 하는 의무가 그 무엇보다 교회에 절실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르키나파소의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때로는 문화적 신학적으로 갈려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의 관계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불화가 그들의 모습을 해치기에, 그들은 치유의 기름과 포도주를 서로 상처에 부어줄 수 있도록 교회 일치적 화심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부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여관이 종종 교회의 표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동안, 사마리아인이 다친 이를 여관으로 데려갔던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교 교회들 각자도 이 세상의 상처 입고 곤궁한 이들을 돌보아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봉사할 사명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 사명이 일치를 향한 길임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8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한국천주교회	이용훈 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의식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건 총회장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우시홍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
- ❖인도: 임민균 신부(천주교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
 - ❖오르가니스트 박인숙 • 솔리스트 조서현(예닮교회)

그 동안의 합의에 의해서

(1) 성경은 『공동번역 성서』를 사용합니다.

기도회에 사용되는 용어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2) 개신교찬송가, 혹은 가톨릭성가의 가사는 그대로 씁니다.

.....

1968년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학자를 중심으로 성경의 '공동번역위원회'가 결성되어 1971년 신약성경이, 1977년 구약성경이 완역되어 『공동번역 성서』로 출판하였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와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지체협의회 공동 문서는 『공동번역 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치기도회 순서

모임 그리고 하느님 사랑 나눔

인도자 부르키나파소에서 조롱박은 여행에 지친 나그네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는 환영, 융숭한 대접, 친교를 나타냅니다. 방문객이 기운을 차린 뒤에 대화를 시작하고 찾아온 목적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환영하고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물병에 담긴 물을 나누어 마시고 활력을 되찾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도자가 준비된 잔에 물을 나누어 따른다. 이 의식이 끝나면 시작성가를 부르는 가운데 이 예식의 인도자들이 행렬에 참여한다.

시작 성가 -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개신교찬송가 68)

성가를 부르는 동안 순서자들은 행렬로 입장한다.

보통으로

1.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2.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재시여
 3. 주 하나님 이름 높이를 함께 높이며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림니다
 대 주재께 일영 광을 돌리오네
 내 주께만 앞 드러 경배드리며
 그 능력이 우리를 구하소서니

내 주의 이름 높이를 찬양하네
 내 주의 이름 높이를 찬양하네
 주 하나님을 높이를 찬양하네 아멘

예식으로의 초대

인도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회 중 아멘.

인도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시적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형제자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식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느님 계명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 뵈 준비를 합시다.

회 중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모든 백성이 하느님 현존 안에 살아가도록 부르시니,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는 저희 각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며,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시니,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저희가 사랑과 일치 안에 함께하도록 불러 모으시니,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 안에서 저희가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으며 하나가 되었나이다. 아멘.

성가 - 나의 생명 드리니 (개신교찬송가 213, 가톨릭성가 210)

보통으로

1.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서서
 2. 손의 과발음성드 리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서서
 3. 나의 의의 보시드 리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서서
 4. 나의 의의 보시드 리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서서
 5. 나의 의의 보시드 리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서서

세 주하 평 상의 의늘 생 살일진나 토 아을리라 록 갈위말위 주 동하썌하 위 안여만여 해 찬민전주봉 송첩과뜻사 하하대하 게하소서 소하소서 서하소서 아 멘

환영 인사

❖서평원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예닮교회 담임)

찬미와 감사의 호칭기도

❖호세 알레한드로 학생(홍익대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말은이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향합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저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니 찬양 받으소서. 온 세상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이를 주셨으니, 주님, 찬양 받으소서.

회 중 주님, 찬양 받으소서.

말은이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어디서나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모든 씨앗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온 믿음, 일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회 중 주님, 찬양 받으소서.

말은이 사랑이신 하느님, 모든 이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흠송하나이다. 하느님 사랑은 저희가 헤아릴 길 없는 완전한 사랑,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 주시니 흠송하나이다.

회 중 주님, 찬양 받으소서.

고백 기도

- ❖ 1. 구민수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영광의 교회)
- ❖ 2. 조진호 사관(구세군한국군국 인사국장)
- ❖ 3. 최태성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영문서기)
- ❖ 4. 나성권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 총무국장)

인도자 오 하느님, 저희가 이제 저희 죄를 고백하러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말은이1 저희는 하느님 없는 행복을 찾고 사랑의 계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기심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저희를 하느님과 갈라놓습니다.

회 중 **주님, 저희가 겸손하지 않은 걸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오니 저희를 용서하소서.**

(잠시 침묵)

말은이1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 중 **저희를 용서하시고 낮게 하여 주소서.**

말은이2 저희는 타인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이념을 받아들여 분열의 장벽을 세우고, 증오와 폭력의 씨앗을 심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저버립니다.

(잠시 침묵)

말은이2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 중 **저희를 용서하시고 낮게 하여 주소서.**

말은이3 저희는 마음이 완고해져 스스로를 속여 왔습니다. 가없는 마음이 열어져

저희와 구별되는 이들에게서 더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

말은이3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 중 저희를 용서하시고 낮게 하여 주소서.

말은이4 모든 이를 향한 무한하고 조건 없는 하느님 사랑의 본성에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지 못했나이다. 이 사랑에 마음을 닫은 세상은 이기심과 폭력, 무관심과 무의미로 캄캄해졌나이다.

(잠시 침묵)

말은이4 자비로우신 하느님,

회 중 저희를 용서하시고 낮게 하여 주소서.

인도자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때가 차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모든 피조물을 구원 하게 하셨습니다.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 죄를 용서 하시며 성령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소서.

회 중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저희가 한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독서, 창세기 18:1-8

❖이연일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

막 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관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밭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영긴 젓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시편 제138편(화답송)

❖ 김은영 수녀(선한목자예수수녀회)

말은이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려
 주님 이름 찬송하나이다.
 주님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며
 주님 이름과 말씀을 만물 위로 높이셨나이다.

회 중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 응답하셨나이다.**

말은이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회 중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 응답하셨나이다.

말은이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회 중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 응답하셨나이다.

말은이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주님은 손을 뻗치시어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주님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회 중 제가 부르짖던 날, 주님께서 응답하셨나이다.

말은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회 중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복음환호송

주 님 께 영 광 을 주 님 께 영 광 돌 리 세

복음, 누가복음서 10:25-37

❖ 박세론 청년(한국기독교청년연합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반문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네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옳은 대답이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짐짓 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강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김희중 대주교 (본 협의회 전 공동의장, 천주교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전 위원장)

사랑의 송가 (*고린도전서 13장)

회중은 두 편으로 나누어 한 소절씩 번갈아 노래하듯 읽는다. 회중(왼)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앉은 자리에서 왼편에 앉은 이들이, 회중(오른)은 오른편에 앉은 이들이 읽는다.

회중(왼)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모두 할 수 있다 하여도,
사랑 없으면 저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중(오른)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달으며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중(왼) 모든 재산을 굶주린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불사른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중(오른)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등 돌리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뽀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회중(왼) 사랑은 불의를 찬양하지 않고 진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회중(오른)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다 같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 으뜸은 사랑입니다.

성가 - 사랑의 송가 (가톨릭성가 46, 개신교 복음성가)

mp

1. 천 사 의 말 을 하 는 사 람 도 사
2. 진 리 를 보 고 기 뻔 하 합 니 다 무
3. 지 금 은 회 미 하 게 보 이 나 그

랑 없 으 면 소 용 이 없 고 심
래 와 사 심 품 지 않 으 며 모
때 는 주 님 마 주 죄 오 리 하

오 한 진 리 깨 달 은 자 도 울 리
든 것 민 리 고 바 라는 사 람 모
느 님 우 리 고 알 고 계 사 람 듯 무 리

f

는 정 과 같 네 하
것 뵈 뵈 어 주 네 네 리 하
도 주 를 알 리

느 님 말 씀 전 한 다 해 도 그 무 슌 소

mp

용 있 나 사 람 없 이 는 소 용

이 없 고 아 무 것 도 아 님 니 다

중보 기도

- ❖1. 이시온 어린이(예닮교회 어린이부)
- ❖2. 이희선 위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 ❖3. 이승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부장)
- ❖4. 한강희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낙산교회)
- ❖5. 임종훈 신부(한국정교회)

인도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치로 굳건히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자 1 사랑의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친구를, 내 옆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려고 돌보고 계심을
 믿게 해 주세요.

회 중 저희를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느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자 2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의 일치를 바라신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 기도를 합하나이다.

 친교의 하느님,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더욱 많아지는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연합의 신비와 일하심은

 우리에게 조화와 일치로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오니 저희가 주님의 더 큰 영광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기쁨 속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회 중 저희를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느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자 3 세상의 혼란과 분열로 저희 마음이 무너졌나이다.

치유자이신 주님,
목자 없는 양 떼처럼 흩어진 저희를 한 우리로 불러 모으소서.
주님의 영으로 저희에게 활력을 주시고
저희를 돌씩 짝지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새롭게 파견하소서.

회 중 저희를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느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자 4 세상이 테러와 폭력으로 상처 입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처와 안전을 찾아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나이다.

환영하시는 하느님,
이방인을 포용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들과 연대하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하셨듯
언제나 호의와 자비로 형제자매들을 대하려는
저희 다짐을 지켜 주소서.

회 중 저희를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느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자 5 저희는 흔히 나약함과 두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길 건너 지나쳐 갑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사랑이 부족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높고 깊은지 체험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회 중 저희를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인도자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은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바칩시다.

회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각자의 전통대로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인사

❖ 김종생 목사 (본 협의회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마침기도

다같이 주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모두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으니,
저희도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어,
분열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자각하고
모든 희망에 희망을 더하게 하소서. 아멘.*

파견과 축복기도

❖ 참석한 교회지도자들이 함께 축복합니다.

물병을 앞으로 가져와서 회중 앞에 들어올리는 가운데, 공동대표들이 파견을 선포한다.

*부르키나파소 슈망네프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날마다 바치는 기도임.

말은이 생명의 물로 생기를 다시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힘을 얻으며,
 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회 중 아멘.

파견 성가 - 하나되게 하소서 (가톨릭성가 39장)

1. 성 - 부 여이사람들 이 아 버 지의뜻을따
 2. 성 - 부 여내게말기 신 이 사 람을지키시
 3. 성 - 부 여사람들에 게 아 버 지를증거하

라 진 리 위 해 몸 바 치 는 사
 고 나 당 신 과 하 나 이 듯 이
 며 당 신 나 를 사 랑 하 고 내

람 이 되 게 하 소 서 성 부 나 를 이 -
 사 람 들 도 모 두 가 하 나 되 게 하 -
 안 에 항 상 계 시 듯 내 생 명 을 다 -

세 상 에 보 내 심 과 같 - 이 나 도
 읊 소 서 아 버 지 말 씀 - 은 모 두
 바 쳐 서 사 랑 하 오 리 - 니 모 두

사 도 들 을 - 세 상 에 파 견 하 읊 니 다
 진 리 이 며 - 생 명 의 말 씀 이 읊 니 다
 아 버 지 의 - 사 랑 을 알 게 하 읊 소 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의 중요한 날들

- 1740년경 스코틀랜드에서 북미 사람들과 연계하여 열린 성령 강림 운동. 이들의 신앙 부흥 운동 메시지에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함께 바치는 기도들이 포함됨.
- 1820년 제임스 홀데인 스튜어트 신부가 '성령 강림을 위한 그리스도인 총연맹의 제안' 출판. 1840년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냐시우스 스펜서 신부가 '일치를 위한 합동 기도' 제안
- 1867년 제1차 램버스 성공회 주교회의가 그 결의안 전문(前文)에서 일치 기도 강조
- 1894년 레오 13세 교황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전후하여 일치 기도 주간 실천 장려
- 1908년 폴 왓슨 신부가 제안한 '교회 일치 기도 주간' 준수
- 1926년 신앙직제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기 시작
- 1935년 프랑스의 폴 쿠티리에 신부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세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주창
- 1958년 교회일치위원회(프랑스 리옹)와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가 협력하여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준비 시작 1964년 예루살렘에서 바울 6세 교황과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바침.
-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기도야말로 교회 일치 운동의 혼이라고 강조하며 일치기도주간의 준수를 장려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 인일치사무국(현재의 교황청 그리스도 인일치촉진평의회)이 공식으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의 공동 준비 시작
- 1968년 신앙직제위원회와 그리스도인일치사무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공식 사용
- 1975년 지역 교회 일치 운동 단체가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일치 기도 주간 자료를 최초로 사용
- 1988년 말레이시아 주요 그리스도교 단체들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 그리스도교 연합 의 창립 예식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 사용
- 1994년 YMCA와 YWCA의 대표가 포함된 국제 모임이 1996년 자료 준비
- 2004년 세계교회협의회(신앙직제위원회)와 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를 같은 형식으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기로 합의
- 2008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100주년 기념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전신인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이 1908년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 작성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역사

- 1965년 대한성공회 천주교 상호 방문 기도회 개최
- 1986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87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89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0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1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2년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3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4년 한국기독교교회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5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천주교)
- 1996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7년 한국정교회 성 니콜라스대성당 (설교: 한국정교회)
- 1998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1999년 천주교 가톨릭교리신학원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0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1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설교: 천주교)
- 2002년 천주교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3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중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04년 천주교 인천교구 답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설교: 천주교)
- 2006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북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7년 성공회 대전교구 청주수동성당 (설교: 천주교)
- 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보문교회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09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0년 천주교 부산교구 중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1년 구세군대한본영 아현교회 (설교: 천주교)
- 2012년 한국정교회 성니콜라스 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3년 천주교 대구대교구 계산주교좌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목민교회 (설교: 천주교)
- 2015년 한국 천주교 명동대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주중앙교회 (설교: 천주교)
- 2017년 기독교한국루터회 옥수동루터교회 (설교: 천주교)
- 201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19년 한국구세군 구세군영등포교회 (설교: 천주교)
- 202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쌍암동성당(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21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유튜브 생중계)(설교: 천주교)
- 2022년 한국 천주교 대림3동성당(유튜브 생중계)(설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2023년 한국 천주교 논현동성당(유튜브 생중계)(설교: 천주교)

천주교인, 개신교인이 함께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아카데미

(9기) 수강생 모집

- 일 시: 2024년 4월 중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총10강)
- 장 소: 미정 (*온라인과 현장 강의 병행)
- 수강비: 10만원(교재비 포함)
- 대 상: 평신도 천주교인 25명, 개신교인 25명(선착순, 수도자목회자 가능)
- 문 의: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02-743-4471

강사 (*변경 가능성 있음)

송용민 신부	독일 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손정명 수녀	로마 안토니아눔 신학대학,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안교성 목사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현혜 목사	일본 도쿄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민균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준양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태식 신부	독일 괴팅엔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임중훈 신부	서울대학교, 정교회출판사 편집장
조기연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장동훈 신부	로마 그레고리안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운재 목사	미국 유니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찬석 목사	미국 드루대학교, 협성대학교 교수
조현철 신부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정경일 박사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교수



<8기 일치아카데미 수료식>

커리큘럼(*변경 가능성 있음)

강의	주제와 내용
1강	(개강)오리엔테이션,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2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 : 정교회와 천주교회
3강	그리스도교 전통의 형성과 전개 과정 II : 개신교회, 종합토론
4강	다양한 교회인가, 하나인 교회인가? : 그리스도인 일치운동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	
5강	나는 어떻게 구원 받는가? : '구원'에 대한 상호 이해
6강	성경만으로, 성례만으로? : 말씀과 성례(성사)에 대한 상호 이해
7강	“누가 교회인가?” : 교회의 직무와 직제에 대한 상호 이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일치	
8강	오늘의 생태 위기 속의 그리스도인
9강	그리스도교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삶
10강	(종강)종합토론, 수료식

